다산포럼

배나무를 심는 이유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각설이패들이 공연 레퍼토리로 즐겨 부르면서 더 많이 알려진 '장타령'은 원래 시장에서 장사꾼들이 부르던 일종의 노동요다. 오늘날 "골라, 골라"로 시작되는 시장 상인의 노래처럼 상품의 장점을 재미있게 제시하며 호객 행위를 하는 사설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전국 각지에 서는 장의 특징을 해학적으로 나열하는 사설로도 많이 불렸다.

그중에 "화목 많은 화천장, 길이 막혀 못 보고"라는 구절이 있다. 강원도 화천은 통나무의 산지로 유명했다. 화천에 워낙 울창한 산림이 많은 데다가 벌목된 통나무들을 뗏목에 묶어 북한강 물길로 서울 뚝섬까지 운반하는 며칠 동안 나무의 진이 강물에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품질이 더욱 좋아진다고 한다. 이 통나무를 사려고 장사꾼들이 화천장에 모여드는 바람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을 압축된 표현에 담은 것이다.

화천의 옛 이름은 성천(牲川), 낭천(狼川)이다. 지명에서 느껴지듯 이곳은 예로부터 거칠고 험준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고려시대 김극기의 "청산시사린"(青山是四隣) 즉 "푸른 산이 사방의 이웃"이라든가, 이지직의 "운근의상습"(雲近衣裳濕) 즉 "구름이 가까워 옷이 젖는구나" 등의 구절이 이곳의 특성을 잘 묘사한 시로 회자되어 왔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상 통나무 이외에는 옻, 잣, 배 등이 이곳의 특산품이었다.

조선 시대 낭천 현감이 되는 사람은 특산품 중 하나인 맛 좋은 배를 세금으로 거두어 수레에 한가득 실어서 한양에 보내곤 했다. 부임하자마자 떠날 궁리를 하며 그러기 위한 뇌물로 쓰려고 배를 구하기만 했을 뿐, 정작 이곳에 배나무 한 그루 심는 현감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김상숙이라는 인물은 달랐다. 부임한 뒤 현감 업무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여가를 이용해 백설루(白雪樓)를 지었는데, 그 곁에 손수 심고 접붙인 배나무가 열댓 그루나 되었다.

이곳에 오래 있을 것도 아닌데 왜 배나무를 심는지 묻는 이에게 김상숙은 대답했다. "심는 사람은 먹지 못하고 먹는 사람은 심지 않으니, 그 또한 이치인 게지요. 하지만 열매는 내가 먹지 못한다 해도 꽃은 볼 수 있지 않겠소? 더구나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심고서 먹지 못한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심익운은 김상숙의 백설루를 위한 기문을 이렇게 시작했다. "관직에 오르면 조급하게 이루려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직무에 임해서는 남과 나의 구분이 없어야 한다." 대개 관료들이 빨리 성과를 내서 장차 더 높은 자리로 오르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작 지금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 챙겨야 할 사람은 등한시하곤 하는 세태를 비판한 말이다. 관직을 자기 집처럼 여기고 직무에 자기 일처럼 힘쓰며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는 현감으로서의 현재에 충실했던 김상숙을 부각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노자는 천지가 장구한 것은 자신을 위해 도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뒤로 물릴 때 오히려 앞서게 되는 역설을 말했다. 장래의 승진에 급급하고 외부의 명성에 얽매였던 이전의 현감들을 원수로 여기던 백성들이었지만, 지금의 자리에 충실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챙기는 김상숙은 진심으로 따르고 신뢰했다. 소박하게 시작한 백설루도 백성들의 즐거운 참여 덕분에 빠르게 완공되었다.

백설루라는 이름은 북풍 한파에 휘몰아치는 변방의 눈발을 봄바람에 흩날리는 배꽃에 비유한 당나라 시인 잠삼의 '백설가'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김상숙은 험지 낭천에서 주어진 공무에 전념하는 여가에 그저 배꽃 환한 달밤의 누대를 즐길 뿐이었다. 그가 심은 배나무의 열매를 취한 것은 이후의 현감들이었겠지만, 열매의 이득이 꽃의 즐거움보다 반드시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이 결실을 취하지 못할 줄 알면서도 나무를 심는 이들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다. 성과에 조급해하거나 눈앞의 이해관계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즐길 줄 아는 이들이 더욱 필요한 시대다. 의무와 희생으로만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을 즐기는 여유를 지닌 사람, 그 여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야말로 이른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동력이 아닐까.

청춘톡톡

제주의 아름다움과 아픔을 함께하며

박원빈
광주대 스포츠과학부 4년

지난 6월 기말고사가 끝남과 동시에 우리 국토대장정 단원들은 제주로 향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만 하던 우리는 시험도 끝나고 제주도에 바로 와서 그런지 모두 설렘 속에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다. 국토대장정은 제주 동북권 올레길 순례와 한라산 등반, 제주 4·3기념관 및 민속촌 방문, 세계자연유산 방문 등 6박 7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다.

김녕에서 출발해 성산일출봉까지 약 34.6㎞를 도보로 순례를 했다. 장마 기간이어서 비가 올까 걱정을 많이 했으나 비는 오지 않고 날씨는 무더웠다. 걷는 내내 다리는 아프고 발바닥은 물집이 생기면서 온몸이 힘들었지만 제주 해변의 아름다움은 그 모든 것을 잊게 했다.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 우리는 힘든 올레길 순례를 마치고 한라산 등반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호우 특보가 발령되면서 한라산 등반은 취소되었다. 다음 일정으로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국토가 이렇게 아름답고 경이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 연일 탄성이 절로 나왔다.

제주는 아름답지만, 아픔의 흔적을 한가득 담고 있다. 이번 국토대장정을 통해 우리는 제주 4·3기념관을 방문하면서 아름다움 속에 아픈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됐다. 제주 4·3기념관 곳곳을 돌면서 사건이 왜 발생하였는지, 사건이 장기화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대한민국 최초의 학살 사건이자 최대 희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은 아직도 그 희생자를 다 찾지 못해 현재진행 중이다.

이 사건을 알게 되면서 처음에는 황당했고 슬펐다. 하지만 진실을 알면 알수록 난 화가 났다.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과 달리 제주 4·3사건을 상세히 모르고 있던 나는 스스로 매우 화가 났다.

그렇게 제주도의 아름다움만 바라보았던 나는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졌다. 위령탑을 지나 봉안실을 들려 희생자분들께 묵념을 하며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맹세했다.

많은 사람이 여름휴가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다. 연일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푸른 바다, 그리고 우뚝 솟아 있는 한라산까지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자랑이다. 하지만 아픔을 담고 있는 사실은 대부분 모른다.

광주를 방문하면 국립 5·18민주묘지를 관광 코스로 방문하지 않는다. 제주도 4·3기념관도 마찬가지다. 제주도 곳곳에 다니면 4·3사건의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문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문구를 보고 잠시만이라도, 제주 4·3사건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한다.

이번 국토대장정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우정의 싹을 키우는 기회가 됐다. 특히 제주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도 아픈 이야기 속에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 내 인생에 흔치 않은 경험으로 이를 토대로 앞으로 내 삶을 더욱 찬란하게 설계할 것이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아픔의 역사를 꼭 알려주고 싶다는 꿈도 생겼다. 5·18민주화운동과 4·3사건, 광주와 제주의 평화와 인권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더욱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기 고

광주 문화 융성, 어떻게 가야 할까

탁인석
광주문인협회 회장

광주는 자타가 인정하는 '문화 수도'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듣기 좋으라고 선거 공약에 포함시킨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 만큼 광주가 문화 도시 요건에 합당했으니 표명한 말일 것이다. '문화 수도' 광주는 광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생존의 의미까지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가 밥이고 일자리이고 복지이고 보험까지 되어야 할 시점이니 더 무엇을 말하랴. 문화 융성의 묘수를 모색하는 입장에서 내린 결론은 광주시가 시상하는 문화예술상 또한 다른 지역과의 단순 비교를 넘어 존립 자체를 점검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무릇 상은 상금에서 그 권위가 결정된다. 매년 연말이면 시상하는 문화예술상은 명색이 광주시의 이름을 걸었지만 들여다보면 부끄럽고 허약하기 그지없다. 이유는 상의 이름에 걸맞은 상금이 없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예로 박용철 문학상은 출발 무렵에는 1500만 원의 상금과 출판보조비 800만 원 등 도합 2300만 원을 수여하여 당시로는 꽤나 규모를 갖춘 상이었고 문인들의 관심 또한 비상했다. 그러다가 느닷없는 선거법 시비가 일면서 상금은 자취를 감추고 상패나 수여하는 형식적인 상으로 바뀌면서 현저한 질적 저하의 길을 걷게 된다.

수상할 만한 문화예술인은 관심을 접고 침묵하는 가운데 상을 계속 시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 앞에 서게 된다. 강진 영랑 문학상의 상금은 3000만 원, 담양 송순 문학상은 2000만 원, 가사문학 대상 1000만 원, 고흥 송수권 문학상 2000만 원, 인천 구상 문학상은 7000만 원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저런 시비 없이 상을 잘도 운영하는데 유독 우리 광주만 상금이 잘려나간 채 상패만의 상으로 시상되었다. 시상식 때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건의 때문인지 지금은 광주예총을 거쳐 작품집 출판을 돕는 상으로 바뀌어 겨우 600만 원 상당의 출판비 보조가 뒤따르지만 이마저도 외면받기는 마찬가지다.

광주시는 문화 융성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문화경제부시장 직제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에게 제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어느 지자체나 첫 번째 자존심은 문화예술로 가늠한다. 그런데도 이들의 지원은 닭 모이 뿌리듯 소소한 것이 현실이다. 조그만 공사 하나만 줄여도 문화예술 분야에 해갈은 상당할 터인데 그마저도 어찌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다.

현실적으로 광주의 문화 융성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은 간단하다. 문화부시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상금이 풍족한 도시로 가면 되는 것이다. 르네상스가 왜 세계 문화사의 꽃인가. 재력을 쌓은 메디치 가문의 학문과 예술에 대한 전폭적인 후원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 일로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인류 최고의 화가나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등 불세출의 문학가들이 쏟아지게 배출된다. 이탈리아가 르네상스를 이끄는 국가가 되었고 피렌체는 교황까지 여러 명 배출하여 그 흔적이 현대에서도 곳곳에 남아있다.

문화 르네상스가 일류 지향의 광주를 만드는 길이다. 바둑이 왜 인기가 있는가, 그 자체로도 함의가 많지만 상금 액수에 그 비밀이 있다. 정상을 달리는 신진서 프로는 금년 상반기만 해도 상금이 무려 10억 원을 넘어섰다 한다. 골프는 왜 선망의 대상인가. 골프를 잘하면 거두는 상금이 엄청나다.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의 상금 규모는 우리 돈으로 3100억 원에 달한다.

상의 권위는 무엇보다 상금 액수에 좌우된다. 광주가 '무등산'을 주제로 100억 원을 걸어서 작품 공모를 할 수는 없을까. 꿈이 아니다. 당선자가 없으면 안 뽑으면 되고 그 과정에서 국가적·세계적 관심이 모아지고 소동파 적벽부처럼 천하의 문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다. 그런데도 상이 중요하지 상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가 지금껏 광주시 공무원들의 뇌리를 지배하는 경험칙이다.

필자가 속한 단체의 '광주문학상'은 매년 다섯 명에게 시상하는데 상금액은 200만 원 정도임에도 수상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광주문학상'이 있기에 작가들은 밤을 새워 작품을 쓴다. 광주문협의 한 회원님의 정재로 회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는 문학상을 공표하여 무려 154명의 작가들이 수상의 문을 두드렸다. 결론은 광주문화예술상의 매력은 상금의 크기로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를 위해 메세나 운동 등을 가열차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가 문화 발전에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중 문화예술상에 격에 맞는 상금을 걸고 그 위상과 권위를 만들도록 서두를 일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오월 정신이 헌법 정신" 후속 조치 속도 내길

윤석열 대통령이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아 '광주의 오월 정신'을 강조하며 헌법 정신 수호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약속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했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킨 광주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을 되새겼다"고 회고했다. 이어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 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밝힌 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제헌절 메시지에 5·18민주화운동이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주자이던 1년 전 광주를 찾아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하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5·18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지만,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오월 단체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제헌절 메시지에 대해 "국민 통합의 의지"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는 지금도 5·18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필수적이다. 특히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가 그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지금이 적기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국민통합형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정치권은 논의 기구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서둘러 5·18 정신을 헌법에 새겨 넣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육지의 두 배' 섬 택배비 경감 방안 절실하다

섬 지역 택배비가 육지보다 배 이상 비싸 주민들이 큰 불편과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택배 등 민간 3개 회사를 통해 내륙에서 섬으로 10~20㎏짜리 택배를 보낼 경우 택배비 5000원, 도선료 5000원, 영업소 위탁비 1000원 등 1만 100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지 택배비의 두 배가 넘는다. 더구나 택배사들이 배송 물품을 선착장까지만 배달하는 탓에 주민이 선착장에서 물건을 수령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무늬만 택배 서비스인 셈이다.

연륙 도서는 차량 통행이 육지와 다름없지만 택배 요금은 더 불합리하다. 민간 택배 회사를 통해 전국 28개 연륙 도서에 택배를 보낼 경우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1500원부터 많게는 7000원까지 추가 배송료가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 요금까지 더하면 택배 한 건당 최고 1만 3000원이 드는 셈이다.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은 추가 배송료가 부과되는 연륙 도서도 2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 섬 지역 택배비 경감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부당한 요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당 1000~2000원씩 도선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마저 예산 한계로 조기 소진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교육·의료·복지·문화 등에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섬 주민을 위해 불합리한 택배 요금 체계를 서둘러 바로잡고 택배비를 경감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미 택배가 국민 공공재의 영역에 들어온 만큼 택배사가 자율적으로 부과하는 택배 요금 체계도 전향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無等鼓

이재명의 길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정치의 존재 이유를 국민과 민생이라고 강조한 이 고문은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의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며 강력한 혁신을 예고하기도 했다. 대선 패배 이후 4개월, 6·1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민주당의 당권을 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최소한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비주류 정치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도전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에서는 이 고문의 대선 및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속에서도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구도가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어대명' 구도를 뒤흔들 유력 주자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지지세와 인지도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이 고문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는 18대 대선 패배 이후 당권을 장악하며 대선 재수를 통해 정권을 잡았던 '문재인의 길'을 걷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라는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당을 확실히 장악, 차기 대선 가도를 열어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고문의 도전이 '꽃길'이 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당권 도전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대세론에 취해서는 민주당의 통합과 결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법 리스크도 난제다. 검찰 수사에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 된다면 이 고문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잇달아 무릎을 꿇은 '이회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모든 것은 민심에 달렸다. 문재인 정권 창출도 당권의 힘보다는 결국 '촛불'로 대변된 시민 혁명이 원동력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당권 도전 과정은 이 고문에게 또 다른 정치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그가 시대가 요구하는 폭넓은 리더십으로 민심의 공감을 이끌며 '이재명의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대세론 그 자체에 머무르며 정치적 한계를 보일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이사 tu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